

# 美-러 핵무기 경쟁시대 회귀 우려

### 러, 5500km급 신형 미사일 배치 임박

### 미국도 같은급 미사일 유럽 배치 추진

미국이 러시아의 새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공언하면서 양국이 핵무기 경쟁시대로 회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미국 북미방공우주주방위사령부(NORAD)가 지난해 12월26일 레이더 탑재 비행선을 띄워 저고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JLENS' 순항 미사일 포착 시스템을 위해 소형 비행선 한 대를 시험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 비행은 찰스 제이코브 NORAD 사령관이 러시아 공격용 잠수함의 위협을 언급하며 잠수함에 탑재된 순항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미국무부도 지난해 12월10일 의회에서 러시아가 새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브라이언 맥키언 미 국방부 부차관은 국방부가 비슷한 성능의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당국은 러시아가 1987년 양국이 체결한 중거리핵미사일폐기(INF) 조약이 금지한 사거리 500~5500km의 새로운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신형 미사일은 '이스칸데르-K'(Iskander-K)로 알려졌다며 만약 미국이 이에 대응해 유럽에 순항 미사일 배치할 경우 이는 23년 만의 재배치가 된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최근 러시아는 개별 조종이 가능한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SLBM) '불라바'를 개발해 시험 중이다.

또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하며 냉전 시대 썼던 핵미사일 수송 열차까지 지난해 부활시켰다.

여기에 러시아 잠수함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싣고 대서양 건너 미국 동부 해안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미 당국 내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와 순항 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방점을 두는 것은 전력상 우위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운신의 폭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스 크리스토퍼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산하 핵정보 프로젝트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양측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형색색 중하얼빈 '빙등제' 개막 5일부터 시작된 제16회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冰燈祭)'에서 4일 관광객들이 환상적인 색깔을 자랑하는 조각 작품 주변을 거닐며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황, 추기경 20명 새로 임명...한국은 배출 안돼

### 미얀마·통가 등 개발도상국 다수 포함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일(현지시간) 교황 선출권을 가진 15명을 포함해 20명의 추기경을 새로 임명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보도했다.

교황 선출권이 있는 80세 미만의 신임 추기경 15명의 출신지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에티오피아, 파나마, 멕시코, 우루과이, 통가, 뉴질랜드, 베트남, 미얀마, 태국, 카보베르데 등으로 유럽과 북미가 아닌 지역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9명의 출신지는 개발도상국으로 특히

미얀마와 통가, 카보베르데에서 교황이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밝혔다. 15명 가운데 한 명만이 바티칸 행정기구 '큐리아' 출신이었다. 80세 이상으로 교황 선출권이 없는 신임 추기경 5명 중에는 페루 및 모잠비크 출신도 포함됐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기경을 배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통에 얽매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임 추기경들에 대한 서임식은 다음 달 14일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앞서 다음 달

12~13일 모든 추기경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교황청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을 임명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19명의 신임 추기경에 한국의 엄수경(71) 대주교도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은 세번째 추기경을 배출한 바 있다. 웰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일 한국이 가톨릭 신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추기경 배출이 가능하다고 보도하면서 네번째 추기경 배출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2015 지구촌 기상도

# 테러 공포 전세계 확산 러시아 發 금융위기까지

2015년, 지구촌 기상도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IS)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지구촌 곳곳 테러가 우려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세력인 하마스 간의 전선이 또 다시 감돌고 있다.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는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유가 하락과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우려되면서 세계적인 금융 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볼라 출혈열'이 진정될지도 관심이다.

년간 제로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올해엔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접쳤다.

금리 인상 시기는 실업률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과 영국은 실업률이 각각 5.5%, 5.0%까지 떨어지면 물가상승 압력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엄청난 돈을 찍어내 이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 정책의 종료로 선인함에 따라 역사상 유례 없이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디플레 공포에 빠진 유럽중앙은행(ECB)이 지속적으로 돈 풀기(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달러화와 유로화 가치는 올해 중·후반에 1대 1의 등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달러 강세, 유로·엔화 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해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 에볼라 감염 진정되나 주목

지난해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볼라' 감염이 올해는 얼마나 진정될지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확산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서아프리카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에서 전염 속도는 빨라 사망자 수는 급속히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니 등 3개 주요 에볼라 발병국의 사망자 수는 7373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에볼라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발병국인 서아프리카 3개국에 엄청난 재앙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 머크와 뉴링크가 개발한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이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새해 초에는 파스퇴르연구소 등이 예방·치료 백신을 공개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쥐고 있던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를 빼앗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 러 경제위기 속 美 에너지 패권

유럽과 일본, 중국, 남미의 경제가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폭락, 러시아 중앙은행의 대폭 금리 인상, 국제유가 급락과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약점인 서아프리카 3개국에 엄청난 재앙이 우려되고 있다.

급속히 악화한 러시아 재정위기는 국경을 넘어 타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경제 신흥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쥐고 있던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를 빼앗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 '외로운 늑대' 테러 공포 우려

올해는 지구촌 전역에서는 이슬람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lone wolf)의 테러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캐나다와 벨기에 등에 이어 테러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호주에서도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가 현실화되면서 지구촌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의 서방국가에 대한 보복이 우려되면서 테러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

경제가 탄탄대로에 오른 미국과 영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5

### 중국의 영유권 분쟁 가속화

지하 자원이 많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등 인접 국가의 분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필리핀과 맺은 방어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이 분쟁에 개입할 경우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국제적 관심사는 다오위다오(영일령 샌카루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다.

비공식적이지만 일본이 수직 이차륙기인 V-22 오스프리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국가는 물론 미국의 개입도 예측된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b>남</b></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b>여</b></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b>남</b></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최신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신제품 59만원~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